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6월 BOJ 금융정책결정 회의

예상대로 인상, 국채 매입 축소는 중단; 다음 인상은 '26년 12월 전망

- BOJ는 당사 및 금융시장 예상대로 정책 금리를 1.0%로 인상. 반면 '27년 4월부터 국채 매입 축소는 중단. 연초 이후 장기 금리 상승을 우려한 행보
- 유가 하락으로 일본 경제의 리스크 요인 완화된 것으로 판단.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은 '26년 12월과 '27년 6월로 앞당기되, terminal rate는 1.5%로 유지

6월 16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BOJ는 당사 및 금융시장 예상대로 정책 금리(무담보 콜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했다(6:1). 반면, '27년 3월까지 매분기 2천억엔씩 줄여가던 국채 매입 축소를 중단하여, '27년 4월 이후에는 국채 매입 규모를 매월 2.0조엔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만기도래한 국채를 재투자하지 않으면서, BOJ 보유한 국채 규모는 '30년 3월 말 350~370조엔, '24년 말 대비 36~3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책 금리는 인상하되 국채 매입 축소는 중단한 이번 BOJ의 결정은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3일 우에다 총재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크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며, 특히 유가 상승의 가격 전가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즉, 우에다 총재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물가의 선순환이 강화되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오후에 개최된 기자 회견에서 우치다 부총재도 구조적인 물가 상승률은 2%를 향해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나, 2%를 상회할 수 있는 리스크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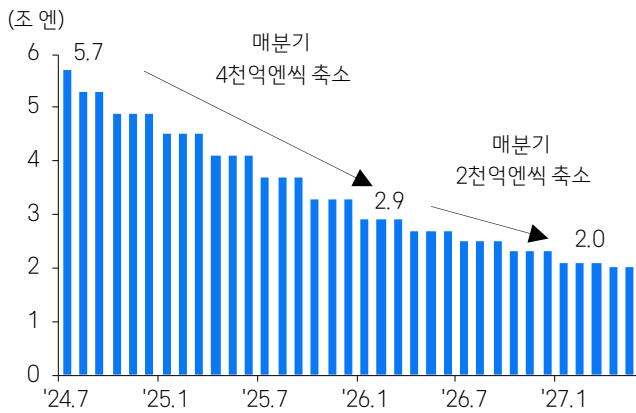
반면, 지난해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 BOJ의 국채 매입 축소정책이 맞물리면서, 일본 국채 금리는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JGB 10년 및 20년 금리 연초 대비 50bps 상승).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유가 보조금 지급 연장을 위한 추경 편성을 언급하거나, BOJ의 금리 인상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당사는 이번 BOJ의 6월 결정을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그리고 장기 금리의 안정)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타협으로 판단한다. 다만, 당일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축소 중단 발표에도 일본 10년 만기 금리는 6bps 상승하여, 금융시장에서는 BOJ의 타협책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는 일본의 실질 정책 금리가 여전히 (-)이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일본 성장의 하방 리스크와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한다. 또한, 일본의 구조적인 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이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물가 선순환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에 따라, 당사는 최종 금리 수준은 1.5%로 유지하되, BOJ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을 기존 '27년 1월에서 '26년 12월로 조정하고, 최종 금리 도달 시점도 '27년 7월에서 6월로 앞당긴다.

Compliance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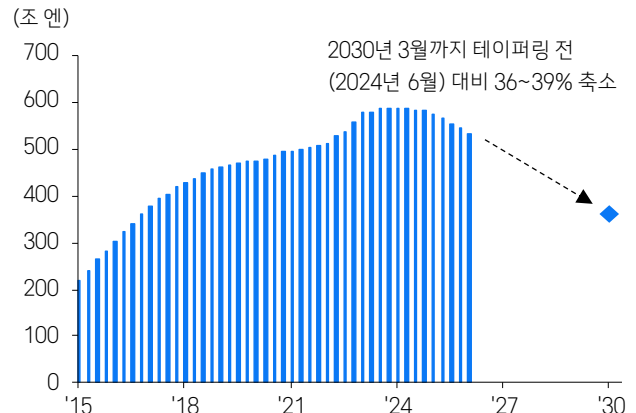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BOJ, 2027년 4월부터 월간 국채 매입 축소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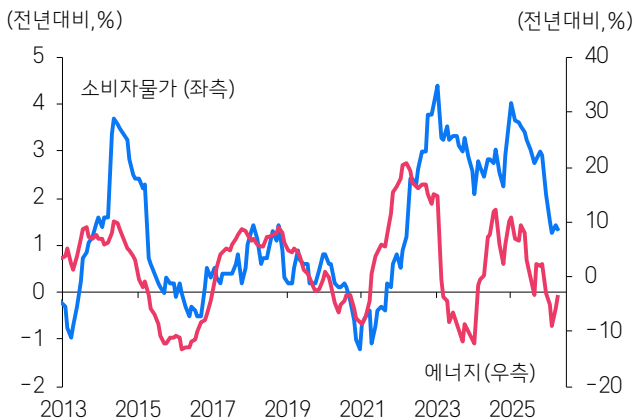
자료: 일본 통계청

BOJ의 일본 국채 보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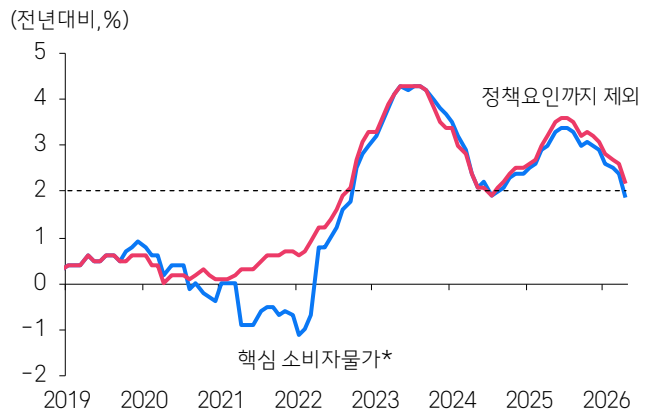
자료: BOJ

일본 소비자 물가 추이: headline vs.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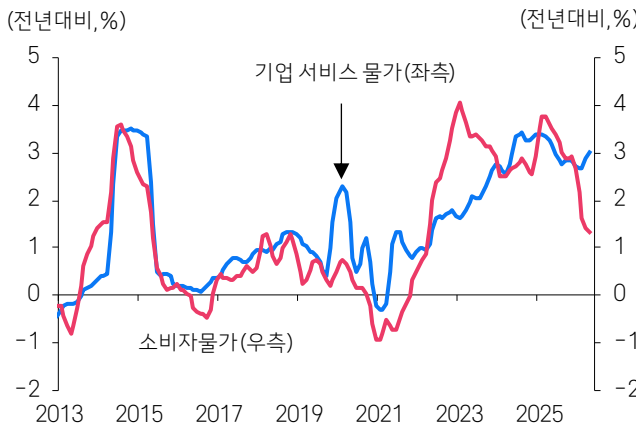
자료: 일본 통계청

BOJ가 추정하는 핵심 소비자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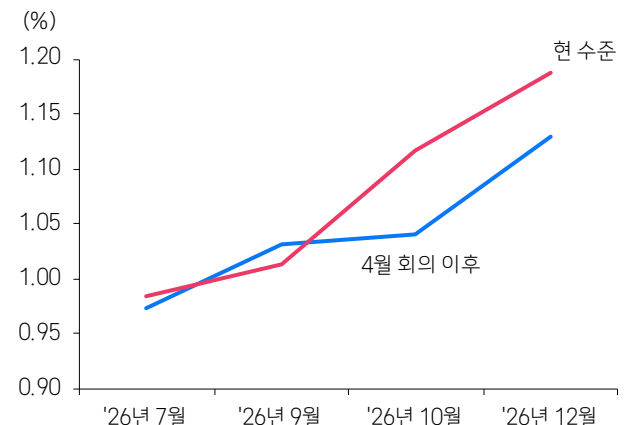
참고: *신선식품, 에너지 제외
자료: BOJ, 삼성증권

기업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기업의 가격 전가를 시사



자료: 일본 통계청, 삼성증권

단기 금융시장의 BOJ 정책 금리 전망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